

## 아동 성폭력 반복피해 요인에 관한 연구

추민경  
독립연구자

### Factors Associated with Repeated Victimization of Child Sexual Violence

MinKyung Chu  
Independent researche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특성을 알아보고 반복적인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C시 소재 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한 아동 254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51.4%의 아동이 반복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아동들이 반복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피해에는 지능, 가족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나 경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이나 중등도 지적장애 혹은 고도 지적장애 아동보다 반복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반복피해를 경험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을수록 반복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치료 및 개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지능, 가족관계, 가해자와의 관계가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보유한 아동에 대한 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ization from child sexual violenc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repeated victimization. Subjects were 254 children who visited the Sunflower Center in City C from 2010 to 2016, and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1.0. Results show that 51.4% of the children had experienced repeated victimization, indicating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children are exposed to repeated victimization. Factors influencing repeated victimization included level of intelligence,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relationship to the assailant.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or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most likely to experience repeated victimization. The more negative the family relationships, the easier it was for a child to experience repeated victimization, and children were more vulnerable if their assailant was an acquaint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in the treatment for, and in interventions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the victim's intelligence, family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with the assailant may be major factors, suggesting a need for attention and concern not only for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also for those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Keywords** : Child Sexual Violence, Repeated Victimization, Intelligence, Family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Assailant

---

\*Corresponding Author : Minkyung Chu(Independent researcher)

email: cmk039@naver.com

Received September 21, 2023

Accepted December 8, 2023

Revised October 31, 2023

Published December 31, 2023

## 1. 서론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환기시키기 위한 영화가 제작되거나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다. 성폭력은 10년간 일부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검찰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32,898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9.9%가 증가하였다. 이 중 20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 역시 적지 않으며[1]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2,3]. 특히 성인기의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격장애 등과 같은 장기적인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4-6]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반복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는데[7-9] 일반적으로 피해 횟수가 많고 피해 기간이 길수록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기 쉬우며[10,11]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그런 만큼 반복피해와 관련된 요인을 찾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 1.1 반복피해의 개념 및 정의

선행 연구에서는 2회 이상의 피해를 ‘재피해(revictimization)’라고 명명하고 있다. 재피해에 대한 정의는 피해 수준, 아동의 연령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피해를 입은 아동이 성인기에 다시 성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재피해’로 정의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내에 일어나는 다수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재피해 대신 ‘반복 피해(repeated victim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비접촉성 성행위, 접촉성 성행위를 모두 성폭력으로 정의하였다.

### 1.2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다수의 피해는 심각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10-12] 어떤 요인이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동성폭력, 특히 반복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료적 개입 및 예방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본 연구를 토대로 반복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순진성,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끌리는 경향으로 인해 타인에게 속기 쉽다. 또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착취, 희생을 비롯해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곤 한다[14]. 이처럼 지적장애인은 성피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실제 현장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성폭력전담기관에 자주 방문한다.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에 비해 대처 방식이 상당히 미숙하나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곤 한다. 또한 아동은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데다 성폭력 경험이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6] 조기 개입 및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의 지능과 반복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만큼 본 연구를 통해 임상적 경험을 통계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고 추후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피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는 하나 선행연구들은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다[15-18]. 또한 가해자 연령, 피해자 나이 등의 다양한 사건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와의 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가 반복피해와 관련이 있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9-21]. 재피해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는 만큼 주요한 변인들에 대한 반복검증을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피해는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반복피해’와는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재피해와 관련 있는 주요 변인들이 아동기 내의 반복적인 피해와도 유사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재피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회고를 통해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조사기간이 짧으며, 특정 지역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한계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폭력전담기관에 방문하는 아동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유사한 결과를 타 지역에서 반복 검증함으로써 일반화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자료인 만큼 일부 사회적 배경 및 특성을 반영해준다기보다는 다양한 피해자 특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한 임상 데이터가 극소수인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실제적/학계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

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던 인지적 요인, 가족관계적 요인, 가해자와의 관계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 1.2.1 인지적 요인

지적 장애란 지적기능과 적응기능 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14].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2,23] 이들은 남을 쉽게 믿으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24,25]. 또한 자기주장이 약하며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타인의 요구에 응하기 쉽다[26].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거나 학대라는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22] 이를 인지하고 타인에게 알려더라도 의사소통 능력,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에 이르지 못한 채 방치되기도 한다[27]. 즉,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법적은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은 IQ 지수 70~84에 해당하며 평균보다 1표준편차~2표준편차 낮은 지능 지수를 말한다. 이들은 지적장애만큼 일상기능의 제한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습득 속도가 느리고 대처기능이 부족해 일상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곤 한다. 이에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ifth edition)에서도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문제로 BIF(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를 언급하고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지적 장애인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들이 반복 피해에 있어 어떤 특징을 보이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1.2.2 가족관계적 요인

많은 연구에서 가정 구조, 양육자의 기능, 가정경제상황 등의 부정적인 가정환경이 성폭력 피해의 위험요인임을 밝혔다[28-31].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가족관계는 재피해의 위험요인으로서도 연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일피해 집단과 성인기 재피해 집단 사이에 가족 기능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15] 가족응집력이 낮을수록 재피해의 위험이 높았다[16]. 또한 아동기의 신체적, 성적 학대나 가족 내에서 느끼는 무가치감이 청소년기 이후에 재피해를 예측해주시기도 하였으며[17] 가족 불안정성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손상, 부모의 약물 복용이나 정신병리와 같은 부모 문제가 성인기의 재피해와 관련이 있었다[18].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 역기능적인 가족관계가 성인기 재피해와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동기 내의 반복적인 피해와도 유사한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1.2.3 가해자와의 관계 요인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을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20] 심각한 피해는 보다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면식범에 의한 피해, 특히 친밀한 사람에 의한 피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부적응 문제를 일으키며 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10,32]. 심각한 후유증은 재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15] 면식범, 특히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이후 다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피해자가 수치심, 죄의식, 낙인과 비난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설하는 것을 꺼려하며 이로 인해 외부로 노출되거나 신고 되는 일이 적다[33,34].

선행연구에서도 가해자와의 관계가 반복적인 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친족성폭력의 경우 피해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가 45.1%로 장기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다[19]. 또한 비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7.4 %만이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하는데 반해 면식범에 의한 경우는 57.6 %가 반복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0] 국외 연구에서도 가해자가 친밀한 대상일수록 재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1].

## 1.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성폭력 반복피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해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성폭력 피해 특성을 파악한다.
- (1) 경도 지적장애, 경계선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이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이나 중등도 및 고도 지적장애 아동보다 반복피해에 취약한지 확인한다.
- (2) 부정적인 가족관계가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2) 가해자와의 관계가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1.4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을 탐색하기 위한 양적 연구이다.

## 1.5 연구방법

### 1.5.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시 소재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은 다양한데,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폭력에는 접촉행위(삽입, 추행 등)와 비접촉행위(신체 노출, 언어적 희롱, 음란물 제공 등)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 중 심리평가를 진행하였던 25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자료의 총  $N$  수는 각 표에 제시하였다.

### 1.5.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의 심사를 통해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숙련된 임상심리전문가가 면담 및 심리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아동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번호로 코딩하여 익명화하였다.

### 1.5.3 연구도구

#### 1.5.3.1 면담기록지

피해자, 사건, 환경 변인은 아동기 성학대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이를 범주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아동성폭력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기록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통계 분석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와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면담기록지는 피해자, 가해자, 사건, 환경, 개입 등에 대한 항목이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가 면담을 통해 해당 범주에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성별 및 연령, 피해횟수, 피해유형,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의 관계, 가정의 형태, 양육자 학력, 양육자 국적’ 정보를 분석에 사용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기 위해 가해자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면담기록지의 구성 및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접수경로(방문, 전화, 기타), 등록년도(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성별(남, 여), 내원의지(자발, 비자발), 내원경로(학교, 사회복지기관,

원스톱/해바라기센터, 의료기관, 행정기관, 경찰, 기타, 미파악), 연령(0-5세, 6-10세, 11-15세, 15-20세, 21세 이후, 미파악), 거주지1(충북, 충남, 대전, 기타, 미파악), 거주지2(제천, 청주, 충주,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기타), 거주지3(농촌지역, 시내지역, 공단지역, 기타지역, 미파악), 초기 상담자(본인, 부모, 양육자, 기관근무자, 기타, 미파악), 상담이력(피해상담 경험 있음, 피해상담 외 경험 있음, 상담 경험 없음, 미파악), 추정인지기능(우수지능군, 정상지능군, 경계선지능군, 지적장애군, 미파악), 피해횟수(1회, 2회 이상, 미파악), 피해유형(신체추행, 성기추행, 항문성교, 구강성교, 강간, 가해자 성기노출, 음란물 노출, 사건목적, 폭력, 협박, 기타), 가해인원(1인, 2인, 3~4인, 5인 이상), 외상진료(산부인과 진료, 소아과 진료, 비뇨기과 진료, 기타 과 진료, 혼합 진료, 진료실시 안함, 미파악), 고소여부(센터 방문 전 고소, 센터 방문 후 고소, 고소 안함, 고소 보류, 미파악), 피해 진술(원스톱에서 진술, 경찰서에서 진술, 해바라기에서 진술, 진술 안함), 가해자 연령(남, 여, 미파악), 가해자 연령(0-5세, 6-10세, 11-15세, 15-20세, 21세 이후, 미파악), 피해자와의 관계1(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미파악), 아는 사람의 관계(친인척, 동네사람, 친구 및 선후배, 이성친구, 양육자 애인 및 지인, 기타), 가정의 형태(부모가정, 부모가정 외, 미파악), 양육자 학력(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전문대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무학, 미파악), 양육자 직업(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일당 노동자, 무직, 농사, 기타, 미파악), 양육자 국적(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기타 및 미파악), 가정경제상황(최상, 상, 중, 하, 최하, 기초수급, 미파악), 상담지원횟수(1회, 2~10회, 11~20회, 21회 이상, 지원 없음), 의료지원횟수(1회, 2~10회, 11~20회, 21회 이상, 지원 없음), 약물지원횟수(1회, 2~10회, 11~20회, 21회 이상, 지원 없음), 약물지원(약물치료 진행, 약물 없음), 입원지원(입원치료 실시, 입원치료 없음)

#### 1.5.3.2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Korean-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이하 KPRC)

KPRC는 만 3-17세 아동의 심리적 증상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도구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35]. 총 177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3개의 타당도 척도(허구, 빈도, 자아탄력성)와 10개의 임상척도(언어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가족관계’ 척도의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도구 개발 당시 가족관계 척도의 Cronbach’s  $\alpha=.65$ 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72$ 였다. 가족관계 척도는 가정불화, 가정 내의 긴장,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 1.5.3.3 웨슬러지능검사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웨슬러지능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아동의 연령, 내원 시기에 따라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II,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IV, Korean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 Korean 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Intelligence-IV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모든 도구는 국내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정규분포를 따른다[36]. 본 연구에서는 전체지능지수(FSIQ)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1.5.4 분석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성별, 사건특성, 가정환경 특성)를 빈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반복피해 정도가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반복피해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 2. 본론

### 2.1 연구결과

#### 2.1.1 아동성폭력 피해자 성별 및 연령 분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연령분포는 Table 1과 같다. 남아는 30명(11.8%), 여아는 224명(88.2%)이었다. 피해자의 연령은 0-5세가 28명(11%), 6-10세가 59명(23.2%), 11-15세가 105명(41.3%), 16-20세가 62명(24.4%)로 11-15세가 가장 많았다.

Table 1. Victims of child Sexual violence’s age and sex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30(11.8)
	Female	224(88.2)
All		254(100.0)
Age	0-5	28(11.0)
	5-10	59(23.2)
	11-15	105(41.3)
	16-20	62(24.4)
All		254(100.0)

#### 2.1.2 아동성폭력 사건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단일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88명(48.6%), 반복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93명(51.4%)으로 적지 않은 수의 아동이 반복피해를 경험하였다.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42명(18.7%),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가 183명(81.3%)으로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다. 구체적으로 친인척 63명(33.0%), 이웃 사람 17명(8.9%), 친구 및 선후배 53명(27.7%), 이성친구 6명(3.1%), 양육자 지인(애인 포함) 11명(5.8%), 기타 41명(21.5%)로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추행 128명(52.0%), 유사강간 19명(7.7%), 강간 71명(28.9%), 목격 15명(6.1%), 기타 13명(5.3%)로 접촉성 행위(추행, 유사강간, 강간)가 월등하게 많았으며 강간과 같은 보다 심각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n(%)
Number of Sexual Violence	Single	88(48.6)
	Repeated victimization	93(51.4)
	All	181(100.0)
Relationship with Assailant	Stranger	42(18.7)
	Acquaintance	183(81.3)
	All	225(100.0)
Relationship with Acquaintance	Relative	63(33.0)
	Neighbor	17(8.9)
	Friend	53(27.7)
	Boyfriend/ Girlfriend	6(3.1)
	Parent’s Acquaintance	11(5.8)
	Other	41(21.5)
All		191(100.0)
Sexual Violence Type	Molest	128(52.0)
	Similar Rape	19(7.7)
	Rape	71(28.9)
	Witness	15(6.1)
	Other	13(5.3)
All		246(100.0)

2.1.3 가정환경 특성

성폭력 피해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과 관련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가정인 경우는 125명(57.1%), 부모가정 외(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시설가정, 조손가정 등)는 94명(42.9%)이었다. 양육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208명(81.9%), 외국인인 경우는 26명(11.1%)이었으며, 양육자가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24명(30.8%),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54명(69.2%)이었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n(%)
Type of Family	Parents'	125(57.1)
	Other	94(42.9)
All		219(100.0)
Nationality of Fosterer	Korean	208(81.9)
	Other	26(11.1)
All		234(100.0)
Fosterer's Level of Education	College or University	24(28.6)
	Other	54(69.2)
All		78(100.0)

2.1.4 지능

연구 가설에 따라 지능과 반복피해가 이차함수의 모양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Nagelkerke  $R^2=.041$ , 예측정확도 53.6%). 지능의 직선형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B=.01$ ,  $p=.54$ ) 곡선형 관계는 유의하였다( $B=-.00$ ,  $p<.05$ ). 구체적으로 지능과 반복피해는 Fig. 1과 같이 포물선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경도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중등도 및 고도의 지적 장애 아동이나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에 비해 반복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redict effect of intelligence (N=168)

	B	Standard Error	Wald	Degrees of Freedom	p	Exp(B)
Intelligence	-.01	.01	.39	1	.54	1.00
Intelligence <sup>2</sup>	-.00	.00	4.60	1	.03	1.00
constant term	.30	.21	2.16	1	.1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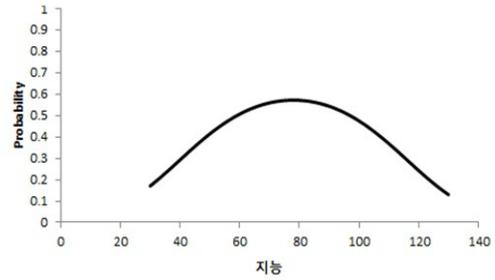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with intelligence and repeated victimization of child sexual violence

2.1.5 가족관계

부정적인 가족관계(부모-자녀 갈등, 부부갈등, 가정불화 등)가 반복피해를 예측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Nagelkerke  $R^2=.093$ , 예측정확도 61.6%) 가족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반복피해를 예측해주었다( $B=.03$ ,  $p<.05$ ). 즉,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반복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Table 5. Predict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N=125)

	B	Standard Error	Wald	Degrees of Freedom	p	Exp(B)
Family relationship	.03	.01	8.21	1	.00	1.00
constant term	-1.82	.71	6.66	1	.01	.16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변인 중 어떤 요인이 반복피해와 관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에서 수집되었던 가족관계 변인(가정형태, 양육자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자의 국적( $\chi^2=0.51$ ,  $p=.61$ )과 양육자의 학력( $\chi^2=1.05$ ,  $p=.40$ )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가정 형태( $\chi^2=4.34$ ,  $p<.05$ )에서의 집단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자료는 Table 6과 같다; 부모 가정일 때는 단일 피해가 46명(51.7%), 반복피해가 43명(48.3%)로 단일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더 많았으나 부모 가정 외의 가정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단일피해 25명(35.2%), 반복피해 46명(64.8%)로 반복피해가 더 많았다.

Table 6. Repeated victimization patterns according to family type (N=160)

		Single victimization	Repeated victimization	Total
Family type	Parents	46(51.7 %)	43(48.3 %)	89(100.0 %)
	Other	25(35.2 %)	46(64.8 %)	71(100.0 %)
	Total	71(44.4 %)	89(55.6 %)	160(100.0%)

2.1.6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 차이는 Table 7과 같다.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단일피해 35명(97.2 %), 반복피해 1명(2.8 %)로 단일피해 사례가 훨씬 많았으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단일피해 48명(38.1 %), 반복피해 78명(61.9 %)로 반복피해가 더 많았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chi^2=39.18, p<0.001$ ).

Table 7. Repeated victimization patterns according to relationship with assailant (N=162)

		Single victimization	Repeated victimization	Total
Relationship with assailant	Stranger	35(97.2 %)	1(2.8 %)	36(100.0 %)
	Acquaintance	48(38.1 %)	78(61.9 %)	126(100.0 %)
	Total	83(51.2 %)	79(48.8 %)	162(100.0%)

가해자와의 관계가 반복피해를 예측해주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Nagelkerke  $R^2=.341$ , 예측정확도 69.8 %), 가해자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반복피해를 예측 해주었다( $\beta=-1.88, p<.001$ ). 즉, 가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을 때, 반복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Table 8. Predict effect of relationship with assailant (N=162)

	B	Standard Error	Wald	Degrees of Freedom	p	Exp(B)
Relationship with assailant	4.04	1.03	15.37	1	.00	56.88
constant term	-3.56	1.01	12.29	1	.00	.03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성폭력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봄으로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예방 및 개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복피해율은 51.4%로 적지 않은 아동이 반복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경험하기 쉽다는 선행연구[7]와 일치한다. 상당수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반복피해에 노출되는 만큼 반복피해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추후에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시사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도 지적장애(FSIQ 50-69)나 경계선 지능(FSIQ 70-84)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중등도 및 고도 지적장애나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진 아동에 비해 반복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은 낮은 언어적 기능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37-39]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의 취약한 특성을 알고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아[40] 피해자들이 적절한 대처, 폭로를 하지 못한 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경미한 지적 제한(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적장애)이 있는 경우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14]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보다 다양한 피해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반복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의 이해, 실행 수준에 맞춘 조기 성 교육을 의무화, 확대시켜야 하겠고 추후 이들의 어떤 특성이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함으로써 개입, 예방에 활용해야겠다.

둘째,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반복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가족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재피해 뿐만 아니라 아동기 내의 반복 피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그런 만큼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추후 성폭력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가정의 형태에 따라 반복피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형태가 반복피해에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아는 관계에 있을수록 반복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20,21]를 지지해준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신고 및 치료에 연계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복적인 피해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노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본 연구는 C시의 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한 아동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7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인 만큼 조사대상자 특성 뿐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혼입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또한 심리평가를 한 임상심리전문가가 동일하지 않아 평정자에 따른 오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성폭력 반복 피해의 요인을 알아본 국내 초기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복 피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추후 연구에 초석을 마련해주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 있겠다.

#### 4. 결론 및 제언

아동 성폭력은 드물지 않은 현상으로 아동 삶의 다양한 영역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피해는 심각한 후유증 및 낮은 치료효과와도 관련이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반복피해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경험에 비추어 인지적 기능이 반복피해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족관계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반복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3가지의 변인 모두 반복피해의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구 결과를 추후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 현재까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계선 지능의 아동 역시 반복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References

- [1] Analytical Statics on Crime, Technical Repoort, Supreme Prosecutor's Office, Korea, pp.3-40.
- [2] J. K. Kim, Z. S. Kim, "Psychological Effect of Childhood Sexual Abus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747-769, 2000.
- [3] A. Martin, J. M. Najman, G. M. Williams, W. Bor, E. Gorton, R. Alati, "Longitudinal Analysis of Maternal Risk Factors for Childhood Sexual Abuse: Early Attitudes and Behaviours,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Healt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45, No.8, pp.629-637, Aug. 2011. DOI: <https://doi.org/10.3109/00048674.2011.587395>
- [4] J. H. Beitchman, K. J. Zucker, J. E. Hood, G. A. DaCosta, D. Akman, E. Cassavia, "A review of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Vol.16, No.1, pp.101-118, 1992. DOI: [https://doi.org/10.1016/0145-2134\(92\)90011-F](https://doi.org/10.1016/0145-2134(92)90011-F)
- [5] D. M. Fergusson, G. F. H. McLeod, L. J. Horwood, "Childhood sexual abuse and adult developmental outcomes: Findings from a 30-year longitudinal study in New Zealand", *Child Abuse & Neglect*, Vol.37, No.9, pp.664-674, Sep. 2013.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13.03.013>
- [6]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Finkelhor, D.,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Vol.113, No.1, pp.164-180, 1993.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13.1.164>
- [7] A. A. Roodman, G. A. Clum, "Revictimization rates and method variance: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p.21, No.2, pp.183-204, Mar. 2001. DOI: [https://doi.org/10.1016/S0272-7358\(99\)00045-8](https://doi.org/10.1016/S0272-7358(99)00045-8)
- [8] H. K. Kwon, J. H. Jang, "Perception of Sexual abuse behaviors and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 on Adolescents vistims", *The Korean Society Women Psychology*, Vol.8, No.1, pp.35-47, Apr. 2003.
- [9] K. H. Kim, C. Y. Anh, "Perception of Sexual abuse behaviors and Self-detrimental sexual behavior on Adolescents vistim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6, No.4, pp.903-920, 2007. DOI: <https://doi.org/10.15842/kicp.2007.26.4.006>
- [10] K. A. Choi, H. M. Jin, "Factors Affecting Victimization Syndrome of Sexual Abused Children",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Vol.30, No.4, pp.185-206, Nov. 2014.
- [11] G. Pérez-Fuentes, M. Olfson, L. Villegas, C. Morcillo, S. Wang, C. Blanco,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Child Sexual Abuse: A National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Vol.54, No.1, pp.16-27, Jan. 2013. DOI: <https://doi.org/10.1016/j.comppsy.2012.05.010>
- [12] B. P. Marx, K. S. Calhoun, A. E. Wilson, L. A.

- Meyerson, "Sexual revictimization prevention: an outcome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9, No.1, pp.25-32, 2001.  
DOI: <https://doi.org/10.1037/0022-006X.69.1.25>
- [13] T. L. Messman-Moore, P. J. Long, "The role of childhood sexual abuse sequelae in the sexual revictimization of women: an empirical review and theoretical reformul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3, No.4, pp.537-571, Jul. 2003.  
DOI: [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203-9](https://doi.org/10.1016/S0272-7358(02)00203-9)
-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sup>th</sup> ed, p.947,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pp.33-40.
- [15] J. E. Heo, *Factors affecting revictimization in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Ph.D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716, 2017.
- [16] E. O. Paolucci, M. L. Genuis, C. Violato, "A meta-analysis of the published research on the effe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135, No.1, pp.17-36, Jan. 2001.  
DOI: <https://doi.org/10.1080/00223980109603677>
- [17] B. Krahé, R. Scheinberger-Olwig, E. Waizenhöfer, S. Kolpin, "Childhood sexual abuse and revictimization in adolescence", *Child Abuse & Neglect*, Vol.23, No.4, pp.383-394, Apr. 1999.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99\)00002-2](https://doi.org/10.1016/S0145-2134(99)00002-2)
- [18] D. M. Fergusson, L. J. Horwood, M. T. Lynskey, "Childhood sexual abuse, adolescent sexual behaviors and sexual re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Vol.21, No.8, pp.789-803, Aug. 1997.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97\)00039-2](https://doi.org/10.1016/S0145-2134(97)00039-2)
- [19]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16 Consult analysis,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Korea, pp.1-18.
- [20] S. H. Song, *A Study on the Child and Adolescent Sexual assaults: Based on data from One-stop Service Center*,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pp.1-22.
- [21] S. Negriff, J. U. Schneiderman, C. Smith, J. K. Schreyer, P. K. Trickett, "Characterizing the sexual abuse experiences of young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Vol.38, No.2, pp.261-270, Feb. 2014.  
DOI: <https://doi.org/10.1016/j.chiabu.2013.08.021>
- [22] F. Briggs, "Safety Issues in the Lives of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No.29, pp. 43-59, Nov. 2006.
- [23] L. Jones, M. A. Bellis, S. Wood, K. Hughes, E. McCoy et al., "Prevalence and risk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observational studies", *The Lancet*, Vol.380, No.9845, pp.899-907, Sep. 2012.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692-8](https://doi.org/10.1016/S0140-6736(12)60692-8)
- [24] H. J. Moon, "Qualitative Case Study of Sexually Violated Female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9, No.3, pp.1-29, Sep. 2015.
- [25] G. R. Choi, G. S. Kim, "The study of art therapy for crisis-weathering of a sexually abused child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11, No.1, pp.5-5, 2004.
- [26] J. O. Jung, "A Case Study on a Woma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Victim of Sexual Abuse", *Children with Social Education Needs*, No.27, 37-52, 2013.
- [27] D. Finkelhor, "Current information on the scope and nature of chil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sexual abuse of children*, Vol.4, No.2, pp.31-53, 1994.
- [28] H. K. Lee, "Child Abuse Risk Factors and the Abuse Types", *Social Welfare Policy*, No.23, pp.77-108, 2005.
- [29] S. K. Ahn, J. H. Yang, I. J. Chung, "Meta-analysis 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the family domain affecting child abus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38, pp.331-358, 2012.  
DOI: <https://doi.org/10.16975/kjfs.2012..38.331>
- [30] P. D. Carey, J. L. Walker, W. Rossouw, S. Seedat, D. J. Stein, "Risk indicators and psychopathology in traumatised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sexual abuse",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Vol.17, No.2, pp.93-98, Mar. 2008.  
DOI: <https://doi.org/10.1007/s00787-007-0641-0>
- [31] D. S. Zielinski, C. P. Bradshaw, "Ecological influences on the sequelae of child maltreat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Maltreatment*, Vol.11, No.1, pp.49-62, Feb. 2006.
- [32] T. Leahy, G. Pretty, G. Tenenbaum, "Perpetrator methodology as a predictor of traumatic symptomatology in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9, No.5, pp.521-540, May. 2004.
- [33] J. I. Lee,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Approaches to Sexual Violence : Toward an Ethnic Gender Perspective", *Cross-Cultural Studies*, Vol.12, No.1 pp.141-193, Jan. 2006.
- [34] L. M. Pazzani, "The factors affecting sexual assaults committed by strangers and acquaintances", *Violence Against Women*, Vol.13, No.7, pp.717-749, Jul. 2007.  
DOI: <https://doi.org/10.1177/1077801207302699>
- [35] S. M. Cho, C. H. Hong, S. T. Hwang, H. Y. Park, J. H. Kim, "A Standardization Study of 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KPRC)"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5, No.3, pp.825-848, 2006.
- [36] W. K. Lee, W. H. Lee, The latest trend in psychological assessment, p.667, Hakjusa, 2016, pp.75-140.
- [37] K. H. Cho, *A Study on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about Sexual violence against Mentally Retarded Women*,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pp.1-126, 2006.

- [38] M. H. Kvam, "Is sexual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disclosed? A retrospective analysis of child disability and the likelihood of sexual abuse among those attending Norwegian hospitals", *Child Abuse & Neglect*, Vol.24, No.8, pp.1073-1084, Aug. 2000.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00\)00159-9](https://doi.org/10.1016/S0145-2134(00)00159-9)
- [39] J. S. Han, S. J. Cho, S. M. Bae, "Factors Associated with Disclosure of Sexual Abuse of Children and Adolescent Victim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26, No.3, pp.176-182, Sep. 2015.
- [40] M. Elliott, K. Browne, J. Kilcoyne,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what offenders tell us", *Child Abuse & Neglect*, Vol.19, No.5, pp.579-594, May 1995.  
DOI: [https://doi.org/10.1016/0145-2134\(95\)00017-3](https://doi.org/10.1016/0145-2134(95)00017-3)

추민경(MinKyung Chu)

[정회원]



- 2017년 8월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상심리학 석사)

<관심분야>

임상심리, 정신장애, 정신건강, 심리평가, 심리치료